

직업재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김 종 진*

1. 서론

어느 사회에서든지 직업은 개인의 사회적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왔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 있어 고용은 재활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다(Roessler & Rubin, 1992). 따라서,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제이다(유병호, 1991).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장애인의 직업참여는 제한적이다. 장애인 실업률은 28.2%로 전체 실업률 4.2%에 비해 6.8배 가량 높다(변용찬 등, 2001). 장애인의 고용유형을 살펴보면, 취업장애인의 절반이 넘는 54.1%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취업장애인의 월 평균임금은 128만원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월 평균임금 183만원의 70%수준이다(장창엽 등, 2001).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률은 기준 고용률 2%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0.95% (2000년 말)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는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하여 관련법률 정비, 보건복지부 내 재활과 신설(1981), 장애인올림픽개최(1988), '장애인 먼저' 운동전개(1996),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1996),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수립(1997) 등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재활부장,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촉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재활사업의 성과가 이처럼 미미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재활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재활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는 새로운 재활방법이나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일이다. 재활서비스의 향상은 프로그램 성과에 관한 조사연구들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이다(Smith, 1987). 따라서 재활분야에서의 조사연구활동은 재활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직업재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실증적 연구의 하나는 직업재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과들은 재활실천가는 물론 클라이언트, 재활기관, 재활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재활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의 활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필요영역 혹은 욕구영역에 사업의 역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성과지향적인 사업수행을 가능하게 함과 아울러 사업의 전문화, 체계화, 효율화를 기하게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의 활용

- 어떤 서비스가 비용·효과적이고 장애인에게 유익한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재활비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의 활용

- 직업재활에 성공적이지 못한 장애인을 위한 지원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의 활용

- 재활행정가 혹은 정부에서 제한된 자원의 할당과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의 활용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직업재활서비스의 개입효과를 높이고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찰해보고, 이를 근거로 직업재활사업실천에 있어 장애인의 성공적인 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재활과정과 재활성과

1) 재활과정

재활대상자의 고용을 효과적으로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활과정은 재활대상자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일련의 계획적인 과정이다(Wright, 1980). 재활과정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가 하나의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각 단계들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인의 특성이나 조건에 따라 재활과정은 달라질 수 있고, 한 개인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동시에 중복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활과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데, 이는 그 과정을 고찰하는 목적이나 방법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박석돈, 1993). 직업재활과정은 일반적으로 (1) 등록 (2) 직업평가 (3) 필요한 서비스 제공 (4) 배치 (5) 사후지도의 5단계로 구분된다.

(1) 등록

이 과정은 클라이언트와 재활상담사가 첫 대면을 가지는 초기면접과정에서 진행된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여 해당기관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의 주요 업무활동들은 ① 클라이언트의 방문동기 파악 ② 기관의 역할, 기능 소개 ③ 등록여부 결정이다.

(2) 직업평가

직업평가과정은 재활대상자의 직업기능과 욕구파악, 재활과정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목표설정, 재활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입이나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한 모든 활동들을 포함한다(Riggall 외, 1990). 따라서 직업평가의 목표는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 과정의 핵심적인 활동은 직업목표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서비스과정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업평가과정은 개인의 잠재적인 직업성과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써 삶의 전체적인 면을 평가한다. 직업평가를 통해 수집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 직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현재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신체기능의 수

준

- 클라이언트의 직업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
- 클라이언트의 행동변화와 기술습득에 대한 잠재력
-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형태
-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들
- 클라이언트의 직업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 클라이언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잠재적으로 가능한 직업에 관한 정보

(Rubin & Roessler, 1999)

결과적으로 재활과정에서의 직업평가는 재활대상자의 재활성파를 예측해내고 재활을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추천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직업평가는 모든 성공적인 재활활동의 중요한 일부로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계획하고 상호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가진다.

(3) 필요한 서비스 제공

이 과정은 이전 직업평가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정한 서비스들을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재활서비스들은 다음과 같다.

- 신체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 심리영역 : 심리치료, 인성적응훈련, 개별상담, 가족치료
- 직업영역 :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직업 전 훈련, 현직훈련, 직업탐색, 보호직업 활동
- 사회영역 : 사회적응훈련, 이동훈련, 레크리에이션 활동(Stern & Spicgel, 1970)

(4) 배치(placement)

직업재활과정에 있어 배치의 주요 활동은 취업알선이다. 취업알선은 장애인에게 최상의 직업을 클라이언트가 획득하도록 원조하는 과정으로서, 장애인들이 적합한 직종을 찾도록 조언해 주거나 알선허 주는 일련의 인력배치 활동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는 장애인이 적합한 직종을 발견하여 훈련을 받고 그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구직기술훈련(job seeking skills training)과 취업 면접훈련(job interview training)이 수행되어진다(Rubin & Rossler, 1999).

(5) 사후지도

사후지도는 장애인이 고용된 후 취업이 적절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능력에 맞게 알선되었는지, 고용주는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직업유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사후지도 과정에서 재활전문가는 고용주에게는 일을 수행하는 장애인의 능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도록 해주고, 장애인에게는 고용주의 신임을 얻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업무활동을 한다.

사후지도의 시작과 빈도는 장애인의 능력과 직업적응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사후지도의 회수는 취업 장애인이 직장에 적응해감에 따라 줄어든다.

2) 재활과정에서 재활상담사의 역할

직업재활의 목표는 장애인이 만족할만한 고용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재활과정에서 재활상담사¹⁾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 광범위하다. 이는 모든 재활서비스가 이들에 의해 조정되고 통합되기 때문이다. 재활대상자가 재활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활상담사는 면접을 통해 서비스의 적격성(*eligibility*)을 파악하고, 그들의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에 의해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 직업배치를 하게 되고, 직업을 가진 후 일정기간 안정된 직업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종결한다. 이와 같은 재활상담사의 역할은 (1) 사례관리 (2) 직업상담과 평가 (3) 정의적 상담 (4) 직업배치 등 4가지로 파악되고 있다(Roessler & Rubin, 1992).

3) 재활성과

재활서비스의 효과는 경제적 이득, 심리적 변화, 사회지위상의 변화, 가족체계상의 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성과 역시 다원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1) 미국의 경우 재활상담사는 소정의 교과과정과 임상경험을 마친 후 자격고시를 통하여 직업재활상담분야의 지식을 평가받은 후 상담을 할 수 있는 공인재활상담사자격증(Certified Rehabilitation Counselor)을 교부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전문인력으로 직업재활상담사 제도를 두고 있다. 직업재활상담사는 한국직업재활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재활상담사 자격에 근거하여 양성되고 있다(조성열, 2000).

그러나 이와 같은 포괄적인 성과의 측정은 측정방법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제약과 측정 기술상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활성과에 관련된 연구문헌에서는 재활성과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재활과정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구직장애인의 서비스 적격여부는 이들이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Hahn, 1987). 따라서 서비스 종결 시 서비스 대상자들의 고용여부는 직업재활과정에서 제공되어진 서비스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공적인 직업재활의 구체적인 요건은 (1) 직업재활서비스의 적격자로 분류된 자 (2)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은 자 (3)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종결한 자 (4) 핵심적인 재활서비스로서 상담을 받은 자 (5) 최소 90일간 고용을 유지한 자이다. 반면, 성공적이지 못한 직업재활의 요건은 (1) 직업재활서비스가 적합하다고 판정 받은 자 (2)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은 자 (3) 어떤 이유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종결짓지 못했거나 적절한 고용을 확보하지 못한 자이다. 또한, 조기 종결의 요건은 (1) 직업재활서비스가 적합하다고 선별된 자 (2)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직업재활의 관계를 종결지은 자이다(Schelat, 2000).

반면, 미국국립재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 1993)는 '6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태'를 직업성과의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어떤 형태로든 성공적인 직업재활의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4) 재활성과 분석틀

장애인의 고용이란 의료, 교육, 경제상황, 과학기술 및 사회 전반의 인식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지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이론적 관점은 장애인의 개인적 속성으로 야기되는 생산성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제반 사회적인 요인 즉,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각각을 개인적 특성 관점과 사회적 특성 관점으로 대별된다(임두택·전리상, 2000). 개인적 특성 관점은 개인의 속성과 인적자본의 수준에 따라 그의 고용기회가 결정된다는 것이며, 사회적 특성 관점은 개인의 취업기회가 그가 속한 사회의 제도적 및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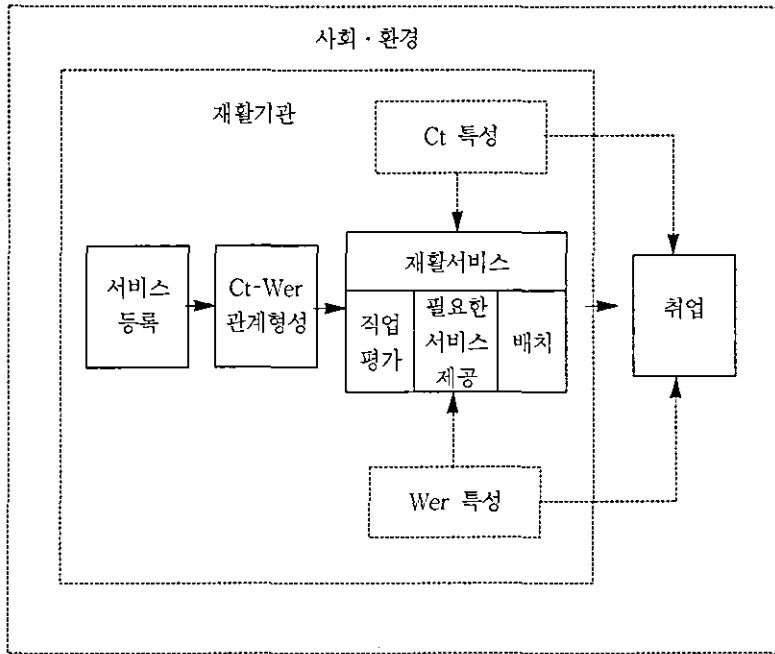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이선우(1977)는 인구학적 요인(성별, 가구에서의 지위, 연령, 결혼상태 및 가구원 수)·인적 자본요인(교육, 직업훈련, 자격증, 직업관련 서비스)·의료적 요인(장애유형과 정도)·심리적 요인을, 임두택(2000)은 개인적 속성(성별, 연령 등)·인적자본(학력, 경력, 자격과 기술 등)요인을 지적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이선우(1977)는 시장의 상황(실업률, 산업구조)·사회의 편견이나 차별의 정도를, 임두택(2000)은 사회적 시설(사회적 편의시설, 작업편의시설)·사회적 인식(일반인 및 고용주의 인식)·제도적 장치(장애인고용제도, 사회보장 제도)·노동시장구조(지역, 국가경제동향과 실업률, 직무구조와 기업규모 등)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외에 재활기관차원에서 장애인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재활기관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고용이므로 직업재활서비스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또한 재활서비스의 효과 또는 성과는 재활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이나 특성 및 서비스를 주고받는 당사자간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재활상담사의 특성과 상담기술은 성공적인 재활상담을 위한 조건으로서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재활성과연구에서 재활상담사의 교육정도와 경험은 클라이언트 변수(장애유형, 실업기간, 학력, 연령)와 함께 재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Schelat, 2000). 아울러 재활성과를 논하는 데 있어 재활상담사-클라이언트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유는 이들간의 관계의 정도가 재활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재활서비스, 재활상담사의 특성 및 클라이언트-재활상담사의 관계는 재활기관차원에서 재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재활과정을 중심으로 재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살펴보면, 이는 크게 (1) 클라이언트 특성 (2) 사회·환경적 특성 (3) 재활서비스 (4) 재활상담사 특성 및 (5) 클라이언트-재활상담사 관계로 분류된다. 결국 재활성과는 이러한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재활과정에 기초한 재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재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chelat (2000)는 재활성과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직업재활분야에서 성과 지향적인 연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한 가지는 클라이언트의 인구학적인 특성과 재활상담사를 독립변수로 하여 이 변수들이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공받은 서비스의 유형 및 성공적인 재활성과 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활상담사의 교육수준 혹은 자격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 변수와 중증장애인의 성공적인 재활성과와의 관련성을 파악한 것이다(Schelat, p. 2).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파악해보면 Schelat가 지적한 두 가지의 연구 유형 이외에도 재활상담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재활서비스 및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재활성화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앞서 제시한 분석틀에 기초하여 5가지 주제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1) 클라이언트 특성 요인 (2) 재활상담사의 특성 요인 (3) 재활상담사-클라이언트 관계 요인 (4) 재활서비스 요인 (5) 사회·환경적인 요인.

1) 클라이언트 특성 요인

(1) 장애수용

장애를 인식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장애의 수용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장애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장애 자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가치변화의 과정을 경험하여야 한다(Linkowski, 1969). 장애수용은 일련의 가치변화를 의미하며, 이것은 (1) 가치영역의 확대: 자신의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의 가치들을 볼 수 있는 능력 (2) 신체에 대한 경시: 신체외형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3) 장애요인에 대한 견제: 지각하고 있는 제한보다 실제적인 제한에 기초하여 장애에 의해 부여되는 제한을 명히 할 수 있는 능력 (4) 장점가치로의 전환: 제한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 등을 포함한다(Linkowski, 1969). Wright(1983)는 장애에 대한 수용은 가치절하 없이 장애를 수용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규준과 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따라서 장애수용에 대한 개념은 유사한 기능적인 제한을 가진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성 과정에서 나타내는 차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장애에 대한 태도가 직업재활서비스의 추구하고 재활프로그램에서의 참여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Smart, 1993). 따라서 재활실천분야에 있어서 공유되고 있는 신념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체계가 장애를 수용하고 장애로 야기되는 변화에 순응적일 수 있을 때, 재활사업은 더욱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Marinelli & Dell Orto, 1984).

Asbury 등(1996)은 장애인의 태도와 고용성과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들은 아프리카 미국인이 거주하는 미국 전역의 재활시설에서 표집한 186명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태도와 고용성과 사이의 관계 및 이들에 대한 사회지원과 취업욕구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다. 이 연구는 장애에 대한 태도와 취업욕구는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장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취업욕구가 높다는 것이다.

(2) 장애

Bolton(1981)은 1979년 이전에 직업재활기관에서 발표한 24편의 추수지도 결과를 검토하고 장애정도가 직업을 얻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Fitzgerald 등(1981)의 연구에서도 심장손상의 정도가 가벼울수록 성공적인 고용가능성은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Linch(1981)는 중증장애인의 직업기능, 인구학적 특성과 재활성과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 직업재활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27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장애유형과 정도는 성공적인 직업배치를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했다.

반면, Wright(1983)는 특정 장애유형에 따라 고용성고가 달라질 수는 없다 하였고, Barrette 등(1978)은 5개 주의 직업재활대상자에 대한 연구결과로써 장애유형이나 정도는 재활성과와 일관된 관련성이 없으며 고용성고를 예측하는 변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Cook(1977) 역시 재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았던 근로 장애인과 비 근로장애인의 특성을 비교한 후, 장애요인은 두 집단의 고용성고를 구별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는 결과를 제시했다.

(3) 학력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보다 성공적인 고용성고를 나타낸다고 한다(Heal & Rusch, 1995). Smith & Crissler(1985)는 산재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중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의 직장복귀 가능성은 낮을 뿐 아니라 다른 직업영역으로의 기술전환 역시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

Crause(1992)는 중증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업을 얻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장애인에 비해 교육연한이 월등히 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Symanski 등(1996)은 교육이 고용시장의 참여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강력한 요인이 됨으로 교육은 장애인이 고용을 얻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4) 장애수당 수령

일반적으로 복지수당을 받는 장애인은 직업을 가질 경우, 그것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다. 실제로 상당수의 복지수혜자들이 현금과 의료 수혜대상에서 탈락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직업생활을 두려워하고 있다(The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1996). 그러므로 많은 장애인들에게서 불확실한 위협을 감내하기보다 일하지 않고 수당을 받으려 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극소수 제한적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소액의 장애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2001년부터 법정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게 된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다르다. 이들은 장애특성상 항시 약물 복용과 진료를 필요로 하는데, 취업을 할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업에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다.

Hill 등(1998)은 사회보장청뿐 아니라 국립장애인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고용저해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고용과 자조활동을 통해 독립성을 얻기보다는 수혜자격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5) 성(sex), 연령, 인종 등

여성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따른 사회화의 결과로서 주부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 지위를 차지해왔다(Alston & McCowan, 1994). 게다가 여성은 보육사 혹은 간호원과 같은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을 추구하도록 격려되어왔다.

최근 연구에서 여성은 비슷한 직업경험과 교육수준을 가진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저임금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Spalter-Roth, Hartman, & Andrews, 1991)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은 비장애인 여성의 임금의 단지 74%에 불과하다(Vash, 1982).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직업참여는 남성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장애인의 실업률은 26.8%인 반면,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은 33.6%로 남자보다 6.8% 높다. 또한 300인 이상 의무고용사업체에서의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 18,710명 중 여성장애인근로자수는 1,677명으로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성과 관련한 직업재활성과에 대한 연구들은 대조적인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코카서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이 용이하다 했는가 하면(James, DeVivo, & Richards, 1993), 다른 연구에서는 35세 이상의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이 더 잘 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Rimmerman, Levy, & Botuck, 1995).

Barrett 등(1978)은 직업재활센터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과 유색인종은 남성이나 백인에 비해 성공적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Dean & Dolan(1984)은 성, 결혼, 학력은 재활성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 지적했다.

Danck & Lawrence(1985)는 재활서비스 종결자 10,022명(남성 6,623명, 여성 3,39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접수 및 종결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서비스 접수율은 낮았지만 서비스 종결률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높았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전형적인 여성직업을 가졌다.

Menz 등(1989)에 의해서도 성에 따른 성공적인 종결률에 있어서의 유사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여성이 특히 직업적응서비스를 포함해서 많은 재활서비스를 받았으며, 남성보다 성공적인 종결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Berkowitz 등(1975)은 성공적인 재활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75가지의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연령, 인종, 교육, 결혼상태가 성공적인 재활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Saxon 등(1983)은 259명의 서비스 종결자의 특성과 프로그램 변인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연령이 재활성가를 예측해낼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Robinson(1983) 역시 New Hampshire의 직업재활 대상자 183명을 조사한 후, 연령이 재활성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Bolton(1980)은 Arkansas 재활센터에서 재활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12년 후의 직업적응을 조사했는데, 나이가 많은 남성은 고용가능성이 낮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를 근거로 Bolton 등은 재활성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은 연령과 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Fitzgerald 등(1981)은 성공적인 재활성가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Georgia 직업재활국에서 93명에 대한 상담기록을 검토했다. 연구대상자 중 54명은 재활성가가 있었는가 하면 39명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들이 발견한 사실은 연령과 재활성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Cook(1977) 또한 종합재활센터로부터 퇴원기간이 2~4년이 된 105명에 대해 추수지도를 실시한 결과, 연령 혹은 성별은 취업과 미취업을 구별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결국, 재활성가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기 위해 성과 연령을 독립변수로 한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연구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거나 성 역할에 따른 제한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6) 복합 요인

Maureen(2000)은 직업재활성가에 대한 예측요인으로서 장애수용, 장애급여 수령, 성 및 교육연한 등 4가지 요인을 조사했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한 것과는 달리 4가지 변수를 한꺼번에 처리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4가지

변수 중 장애급부 수량이 직업재활성과에 대한 유일한 예측요인임을 밝혔는데, 이는 개인이 더 많은 급부를 받으면 받을수록 직장을 얻을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Wilkins(1983)는 미국 직무분석에서 활용되는 28가지 근로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재활대상자의 직업특성과 재활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는 미국직업사전(DOT)에서 분류하는 재활대상자의 직업특성이 고용유무에 따라 어떻게 구별되어 지는가를 연구했다. 연구대상은 Memphis 주립대학 평가실에서 1980.5~1982.7월 동안 평가를 받았던 176명이었다. 이들에 대해 1년 간(1982.12~1983.1) 추수지도를 실시한 결과, 10명이 배치되지 않았고 25명은 직업생활, 42명은 훈련 그리고 99명은 실업상태에 있었다. 연구결과는 교육적 발달, 직업훈련, 인지적 적성과 관련된 직업특성은 재활성과(취업 및 미취업)를 효과적으로 차별하는 요인이 되는 반면 신체조건, 작업요건, 정신운동기술 등은 효과적인 차별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 재활상담사의 특성 요인

재활상담사의 특성과 상담기술은 성공적인 재활상담을 위한 조건으로 강조되어 왔다. Bolton(1972)은 상담사를 정보제공자, 정보교환자 및 치료적 상담자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유형별로 재활성과를 조사한 결과, 전문적인 상담기술을 가진 재활상담사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보다 나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Bolton의 연구에 이은 많은 연구에서 대학원훈련 혹은 상담자격을 가진 공인 직업재활상담사는 중증장애인의 작업에서 성공적인 직업재활성과를 나타냈다.

Szymanski(1988)와 Szymanski & Parker(1989)는 뉴욕의 공공 직업재활프로그램에서 중증 혹은 경증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상담사의 교육경험과 성공적인 경쟁고용성과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다. 238명의 재활상담사가 다른 11,862명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상담사의 재활성과를 조사한 결과, 재활상담사의 교육과 경증장애인의 재활성과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나 석사학위를 가진 재활상담사는 다른 분야 석사학위 소유자 혹은 대학졸업자보다 중증장애인에 대해 많은 성과를 나타내었다. Szymanski(1991)가 Wisconsin에서 공공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114명의 재활상담사와 11,862명의 클라이언트의 성과를 조사한 결과 역시 이전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즉, 재활상담사의 교육정도와 경증장애인의 성과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재활상담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재활상담사와 다른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가진 재활상담사 사이의 성과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재활상담 석사학위를 가진 재활상담사

는 다른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거나 대학을 졸업한 재활상담사보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성공적인 종결률을 나타내었다.

Cook & Bolton(1992)은 1990년 한 해 동안 Arkansas의 공공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가한 5,800명의 클라이언트와 50명의 재활상담사를 대상으로 1989년 Szymanski와 Parker의 연구를 반복하였다. 그들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종결률에 있어 석사수준의 재활상담사와 학사수준의 재활상담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Symanski와 Danek(1992)은 1988년과 1989년 2년 동안 Maryland의 공공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가한 중증장애를 가진 13,502명의 재활클라이언트의 재활성과와 100명의 재활상담사의 교육수준에 있어서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이들은 재활상담에서 석사학위를 가진 재활상담사가 학사학위를 가진 재활상담사보다 경쟁고용에 있어서 높은 성공률을 나타내었다. 재활상담에서 석사학위를 가진 재활상담사의 성공적인 종결률과 관련 분야가 다른 석사학위 소지 재활상담사 사이에는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3) 재활상담사-클라이언트 관계 요인

심리상담 분야에 있어 치료자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성공적인 상담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Gelso, Hill & Kivlighan, 1991). 따라서, 상담자-클라이언트 관계 혹은 치료적 동맹은 프로이드 이후 상담심리학 분야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어왔으며 집중적인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재활상담분야에 있어서도 재활성과를 논하는데 있어 재활상담사-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재활상담사-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재활과정에 있어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활분야에서는 재활상담사-클라이언트 관계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지금까지의 재활분야에서의 조사연구들은 클라이언트 혹은 재활상담사의 특성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어왔을 뿐 재활상담사-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을 통해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와 이러한 관계가 직업재활서비스 전달, 클라이언트의 변화 및 직업재활성과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등한시하였다.

이런 이유로 재활상담사-클라이언트 관계와 재활성과를 연구한 문헌은 Schelat(2000)의 연구가 유일하다. Schelat는 225명의 서비스 종결자를 대상으로 이들에게 작업동맹검사(*working alliance inventory-client form*)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가지고 재활상담사-클

라이언트 관계가 갖는 재활성과의 예측능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작업동맹검사의 전체 점수뿐만 아니라 작업동맹검사의 하위요인들²⁾의 결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 관계를 나타내었다. 예측능력은 조기 종결 혹은 성공적이지 못한 종결보다 성공적인 종결에 대해서 높게 나타났다.

4) 재활서비스 요인

직업재활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재활서비스는 직업평가, 직업훈련, 적응 훈련, 취업알선 등 다양하지만, 가장 우선적이며 중심이 되는 서비스는 직업평가이다(Wright, 1980).

재활과정에서의 직업평가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재활을 돕는 재활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직업평가는 재활대상자의 직업기능과 욕구 파악, 재활과정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목표설정, 재활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입이나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한 모든 활동들을 포함한다(Riggan 등, 1990). 결국 직업평가는 재활서비스가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결정하여 주는 가장 기초적인 재활서비스과정인 것이다(Bolton & Cook, 1980). 따라서, 여기서는 직업평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재활성과를 살펴본다.

Hollenbeck & Campbell(1975)은 Cleveland에서 직업평가를 받은 237명을 대상으로 직업평가에 의한 추천과 추후 재활대상자의 고용상태를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직업평가자의 추천과 재활대상자의 재활상태와는 70.5%가 일치하였다.

Potsubay & Fredrickson(1985)은 개별성문재활계획(IWRP)에 의해 설정된 직업목표와 재활성과의 일치성, 직업평가와 직업배치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타당도의 내적 위협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한 이중 무작위추출방법을 사용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우선 두 집단(취업과 미 취업)으로부터 75명씩의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발한 후, 다시 두 집단으로부터 25명씩의 연구대상자를 추출하였으므로 두 집단은 연령, 성별, 장애, 취업직종, 직업기능, 성격적인 특성이 유사했다. 또한, 무작위 추출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두 집단은 지역, 인종, 사회경제적 수준, 상담자의 개입수준 등의 변수도 유사했다. 실험집단의 경우는 직업적성, 지능, 흥미검사 등의 직업평가를 받았다. 통제집단은 공식적인 직업평가를 제외한 모든 직업서비스를 받았다. 실험집단에서 일반고용이 된 자

2) 작업동맹검사는 재활상담사-클라이언트의 관계에 있어 직업재활목표에 대한 합의, 직업재활과제 혹은 서비스에 대한 합의 및 개인적 결속력 등 3가지 요소를 측정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재활상담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의 점수를 모두 합산한다.

로서 2개월 이상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IWRP에 명시된 직업목표와 일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76%(19명)으로 조사된 반면, 통제 집단은 단지 32%에 불과했다. 연구자는 이 결과로서 직업평가와 성공적인 직업배치 혹은 직업적응과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소개한 연구들은 직업평가가 재활성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이와 상반되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Caston(1987)은 Ohio 직업재활국에서 표집한 220명을 대상으로 직업평가와 재활성가를 연구했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직업력, 인구학적 정보, 제공된 서비스, 장애유형 및 직업관련정보 등이다. 직업성과와 관련시킨 변인들은 직업평가 추천의 효과, 직업력, 인구사회학적 특성, 예후(*prognosis*) 등이었다. 이 연구의 중요한 결과는 직업평가에 의한 직업추천과 직업성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직업평가에 의해 설정된 직업목표와 재활대상자의 성취와의 관련성은 낮다는 것이다.

Smith(1988)는 면접에 기초한 직업추천과 평가에 기초한 직업추천과의 관계를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61명의 재활대상자를 무작위로 4명의 직업평가사에게 할당하고 평가사로 하여금 초기면접과 직업평가를 종결한 후 각각에 대해 추천을 하도록 하였다. 즉, 평가사는 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에 기초해서 일차 직업추천을 한 후, 공식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해서 이차 직업추천을 했다. 이 연구의 주요결과는 면접에 근거한 추천과 평가에 의한 추천 양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Evans(1989)는 Wisconsin에서 1984~87년 동안 종결된 재활대상자 72,000명의 기록을 분석하여 직업평가와 서비스 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했다. 서비스 성과측정의 기준은 재활대상자의 성공적인 종결상태, 재활대상자의 서비스 종결시점에서의 주당 임금이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평가실시 유무에 상관없이 재활대상자가 성공적으로 재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비슷하다. 둘째, 중증장애인이 평가서비스를 받는다면 성공적으로 재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셋째, 평가를 받은 재활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주당 임금이 낮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 역시 Caston(1987)과 Smith(1988)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업평가가 재활성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지 못했다.

재활대상자가 재활과정에 참여한 시간과 재활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Tebb(1982)는 1978~1980년 동안 California 근로자 보상기관으로부터 수집한 6,82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그가 발견한 사실은 재활프로그램의 소요시간이 길수록 재활대상자의 복직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Robinson(1983) 역시 직업평가와 재활성과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고용과 평가기간과의 관계를 조사했다. 그는 1976.

8~1979. 5월 사이에 평가를 받았던 183명의 평가기간을 조사했는데, 그 역시 Tebb (1982)과 마찬가지로 취업한 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평균 23%정도 평가과정 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5) 사회·환경적인 요인

사회복지실천을 통해 나타난 성과들은 클라이언트, 워커 및 프로그램의 결과일 수만은 없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에 있어 가족의 지지, 지역사회자원, 실업률, 경제상황노동환경, 산업구조,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 고용주의 태도, 작업장환경, 사회편의시설 등과 같은 사회·환경적인 요인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이다. 그러나, 재활성과와 사회·환경적인 요인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문헌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연구대상문 제가 갖는 추상성, 연구설계의 기술적인 문제 및 자료수집상의 어려움 등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본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선우(1997)는 사회·환경적인 요인들이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업률, 산업구조, 장애인 차별정도 등 가변적인 요인들에 대한 여러 시점에서의 시계열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 활성과 분석을 위해 사회·환경적인 요인을 독립변수로 활용하는 연구설계의 제한점을 들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만성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를 돕는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지지는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Turner & Ten Hoor, 1978). 최인숙(1987)은 퇴원한 정신질환 자들의 사회복지와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가 양호한 집단에 서 사회적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Jacobs(1988)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적·가족적 지지 체계가 취업과 직업유지의 성공 및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안하였다.

최희수(1999)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직업재활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및 낮병원에 의뢰된 30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사회적 지지 요인(가족의 지지, 친구·타인의 지지)과 세 가지 차원에서의 직업성과 (취업상태, 직업유지기간, 직무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친구·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취업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의 지지가 직무만족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혔다.

이지훈(2000)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정신장애인의 사회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52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

로서 2개월 이상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IWRP에 명시된 직업목표와 일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76%(19명)으로 조사된 반면, 통제 집단은 단지 32%에 불과했다. 연구자는 이 결과로서 직업평가와 성공적인 직업배치 혹은 직업적응과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소개한 연구들은 직업평가가 재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이와 상반되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Caston(1987)은 Ohio 직업재활국에서 표집한 220명을 대상으로 직업평가와 재활성과를 연구했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직업력, 인구학적 정보, 제공된 서비스, 장애유형 및 직업관련정보 등이다. 직업성과와 관련시킨 변인들은 직업평가 추천의 효과, 직업력, 인구사회학적 특성, 예후(*prognosis*) 등이었다. 이 연구의 중요한 결과는 직업평가사에 의한 직업추천과 직업성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직업평가에 의해 설정된 직업목표와 재활대상자의 성취와의 관련성은 낮다는 것이다.

Smith(1988)는 면접에 기초한 직업추천과 평가에 기초한 직업추천과의 관계를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61명의 재활대상자를 무작위로 4명의 직업평가사에게 할당하고 평가사로 하여금 초기면접과 직업평가를 종결한 후 각각에 대해 추천을 하도록 하였다. 즉, 평가자는 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에 기초해서 일차 직업추천을 한 후, 공식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해서 이차 직업추천을 했다. 이 연구의 주요결과는 면접에 근거한 추천과 평가에 의한 추천 양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Evans(1989)는 Wisconsin에서 1984~87년 동안 종결된 재활대상자 72,000명의 기록을 분석하여 직업평가와 서비스 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했다. 서비스 성과측정의 기준은 재활대상자의 성공적인 종결상태, 재활대상자의 서비스 종결시점에서의 주당 임금이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평가실시 유무에 상관없이 재활대상자가 성공적으로 재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비슷하다. 둘째, 중증장애인이 평가서비스를 받는다면 성공적으로 재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셋째, 평가를 받은 재활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주당 임금이 낮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 역시 Caston(1987)과 Smith(1988)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업평가가 재활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지 못했다.

재활대상자가 재활과정에 참여한 시간과 재활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Tebb(1982)는 1978~1980년 동안 California 근로자 보상기관으로부터 수집한 6,82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그가 발견한 사실은 재활프로그램의 소요시간이 길수록 재활대상자의 복직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Robinson(1983) 역시 직업평가와 재활성과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고용과 평가기간과의 관계를 조사했다. 그는 1976.

8~1979. 5월 사이에 평가를 받았던 183명의 평가기간을 조사했는데, 그 역시 Tebb (1982)과 마찬가지로 취업한 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평균 23%정도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5) 사회·환경적인 요인

사회복지실천을 통해 나타난 성과들은 클라이언트, 워커 및 프로그램의 결과일 수만은 없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에 있어 가족의 지지, 지역사회자원, 실업률, 경제상황노동환경, 산업구조,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 고용주의 태도, 작업장환경, 사회편의시설 등과 같은 사회·환경적인 요인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이다. 그러나, 재활성과와 사회·환경적인 요인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문헌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연구대상문제가 갖는 추상성, 연구설계의 기술적인 문제 및 자료수집상의 어려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선우(1997)는 사회·환경적인 요인들이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업률, 산업구조, 장애인 차별정도 등 가변적인 요인들에 대한 여러 시점에서의 시계열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활성과 분석을 위해 사회·환경적인 요인을 독립변수로 활용하는 연구설계의 제한점을 들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만성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를 돕는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지지는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Turner & Ten Hoor, 1978). 최인숙(1987)은 퇴원한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지와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가 양호한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Jacobs(1988)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적·가족적 지지 체계가 취업과 직업유지의 성공 및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안하였다.

최희수(1999)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직업재활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및 낮병원에 의뢰된 30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사회적 지지 요인(가족의 지지, 친구·타인의 지지)과 세 가지 차원에서의 직업성과(취업상태, 직업유지기간, 직무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친구·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취업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의 지지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혔다.

이지훈(2000)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52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

5. 결론

1) 연구결과의 실천적 함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의 하나는 성공적인 고용과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에 역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성과 지향적인 사업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재활성과와 관련성이 높은 요인으로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들은 장애수용, 성, 장애수당수령, 학력, 재활상담사-클라이언트 관계, 재활서비스 참여기간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직업재활사업 실천에 있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초기재활과정에서 재활의 적격성 (*eligibility*) 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자료로써 활용가치가 높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클라이언트 특성 요인으로서 학력, 장애수용 등은 재활성과에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가하면 장애, 연령, 성 등의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요청된다. 이를테면 재활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장애정도, 연령 및 성 등과 같은 요인들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재활상담사-클라이언트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성이 높다. 선행연구에서 재활상담사-클라이언트의 신뢰적 관계는 성공적인 재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밝혀졌다. 직업재활과정에서 재활상담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관계형성은 주로 재활상담사와 클라이언트가 처음 대면하게 되는 초기면접과정에서 형성된다(Roessler & Rubin, 1992). 따라서, 재활실천가들은 초기상담과정에서 바람직한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활상담사와 클라이언트간의 관계형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소개, 클라이언트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 및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주고, 상호간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줄 수 있는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연구들을 통해볼 때 직업평가 서비스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평가과정 혹은 직업평가결과를 지나치게 절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의 활용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의 직업평가과정의 효율성을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활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변인들은 결국 직업평가과정에서 수집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가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직업평가과정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효과적으로 수집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와 관련정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평가체계에 대한 모색이 요청된다.

넷째, 클라이언트 특성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직업성과와 관련성을 가진 변수들을 조사한 연구에서 교육적 발달, 직업훈련, 인지적성과 관련된 직업특성은 재활성과를 효과적으로 차별하는 요인이 되었는가하면 신체요건, 작업요건, 정신운동기술 등은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요인이라는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적인 직업재활사업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우선적인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이 교육적인 요소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장애인 교육사업을 육성, 개발하는 것이 재활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2) 제 언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자면 첫째, 상당수의 연구들이 클라이언트와 재활상담사의 특성에 따른 재활성과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재활분야에 있어 재활상담사-클라이언트 관계가 재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재활상담분야에서 앞으로 크게 주목받을 연구영역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직업재활서비스 소비자들은 직업재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동등한 자격을 가진 동반자로서 참여한다. 동반자적인 상담관계 형성은 클라이언트의 참여 동기 강화, 잠재적인 강점 개발, 삶의 주체성 확립 등, 성공적인 재활의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에 재활상담사-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직업재활결정이 내려지는 방법에 관련된 변량의 상당 부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Schelat, 2000). 따라서, 이 영역에 대해 보다 많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재활성과와 사회·환경적인 요인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문헌이 극히 제한적이다. 재활성과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해온 지금까지의 연구활동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두 가지 중요한 초점의 하나인 환경요인에 대한 분석을 지나치게 등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재활성과에는 여러 차원에서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투입

변수와 재활성과와의 인과관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원적인 측면에서 복합적인 변수들을 활용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처리에 있어서도 다변량분석 등 고급 인과모델링을 통한 원인규명이나 변인간의 상관관계와 유의미성을 파악해낼 수 있는 통계기법의 활용이 요청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연구들이 개별 요인 혹은 단일 체계 내의 소수의 요인들이 직업재활성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뿐, 다원적인 체계 내의 다양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재활성과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Maureen, 2000).

넷째, 선행연구들은 성, 연령, 장애유형 등 클라이언트 특성과 직업평가와 같은 재활서비스가 재활성과를 차별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가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반되게 나타난 연구결과들을 검증하기 위한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다섯째, 직업재활서비스 혹은 재활성과의 예측요인을 조사한 연구 대부분은 사후연구설계(ex post facto) 방식을 택하였다(Hill, 1998; Fitzgerald, 1981; Maureen, 2000; Schelat, 2000). 따라서 변수간의 독립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연구들은 분석자료수집에 있어서 기존의 상담자료나 사후지도 기록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대부분은 연구설계가 단순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의 타당도를 제고시키는 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 참고 문헌

- 권선진. 1999. "장애인 재활의 원리." 《재활상담의 기초와 방법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pp. 3~16). 서울:새림인쇄.
- 박수경. 1997. "산재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 _____. 1999.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7, pp. 171~193.
- 박석돈. 1993. "직업재활상담·평가서비스체계." 장애인직업평가직무교육자료.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편 (3-25).
- 변용찬·서동우·이선우·김성희·황주희·권선진·계훈방. 2001.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소현. 1998. "장애인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유병호. 1991.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미간행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봉원. 1999.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태화생수는 집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 이선우. 1997.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프로빗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3권, pp. 287~313.
- 이지훈. 2000.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임두택·전리상. 2000. "장애인 고용이론과 요인에 대한 고찰." 《현대사회과학연구》 제11권: 전남대학교.
- 장창엽·현호석·강동욱·이금진·최종철·이정호. 2001. "2000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장애인고용》, 40, pp. 100~121.
- 조성열. 2000. "직업재활인력의 전문화방안: 직업재활상담사를 중심으로." 《장애인고용》, 37, pp. 38~66.
- 최희수. 1999. "정신분열 환자의 직업재활 성과의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 논문: 서울여자대학 대학원.
- 최인숙. 1987. "사회적 지지가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심여자대학 대학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건강증진 및 시설운영 개선방안 연구."

- Alston, R. & McCowan, C. 1994. "African American woman with disabilities: rehabilitation issues and concerns." *The Journal of Rehabilitation*, 60(4), pp. 36~41.
- Asbury, C. A., Walker, S., Maholmes, V., Green, L., & Belgrave, F. 1996. "Attitudinal and perceptual correlates of employment status among African American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60(2), pp. 28~32.
- Barrett, Linda W., Collignon, Frederick, Dodson, Richard, Langlosis, Shirley, Rogers, Mark, and Sea, Susan. 1978. *Implementing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The VR program response*. Berkeley: Berkeley Planning Associates.
- Berkowitz, Monroe, Englander, V., Rubin, J., and Worall, John D. 1975. *An evaluation of policy-related rehabilitation research*. New York: Praeger.
- Bitter, James A. 1979. *Introduction to Rehabilitation*. St. Louis: The C. V. Mosby Company.
- Bolton. B. 1972. "Predicting client outcome from intake data." *Rehabilitation Research and Practice Review*, 4(1), pp. 23~26.
- Bolton, Brian. 1980. "Twelve tears later: The vocationa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former rehabilitation clients."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11, pp. 113~112.
- Bolton, Brian. 1981. "Assessing employability of handicapped persons: The voc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12, pp. 40~44.
- Bolton, B., & Cook, D. W. 1980. *Rehabilitation client assessment*. Baltimore: University

- Park Press.
- Caston, Howard L. 1987.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vocational evaluation and rehabilitation outcomes of disabled individu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incinnati.
- Cho, Sung-Youl. 1999. "Factors associated with weekly Earnings at closure of males and female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Unpublished Doctor's Paper, The University of Southern Illinois.
- Cook D. W, & Bolton, B. 1992. "Rehabilit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case performance: An independent replication."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36(1), pp. 37~43.
- Cook, D. W. 1977. "Baselining rehabilitation center outcome and the effectiveness of evaluation recommendation." Research Report, University of Arkansas.
- Cook, T. D., & Campbell, D. T. 1979. *Quasi experiment*. Boston: Houghton Mifflin.
- Danek, Marita M., & Lawrence, Richard E. (1985). "Women in rehabilitation: An analysis of State agency services to disabled women."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16, pp. 16~18.
- Dean David H., & Dolan Rovert A. 1984. Assessing the earnings impact of service-specific expenditure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ers, Chicago, Illinois.
- Evans, Brent Carter. 1989.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tilization of vocational evaluation services and two measures of case outcome within the Wisconsin divis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ystem." Unpublished Doctor's Paper, The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 Fitzgerald, Thomas, McGowan, D., Kutner, M., & Winger N. 1981. "Demographic determinants of succes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cardiac pati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48, pp. 35~38.
- Gelso, C. J., Hill, C. E., & Kivlighan, D. M. 1991. "Transference, insight, and counseling intentions during the counseling hour."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9, pp. 428~433.
- Hahn, H. 1987. "Civil rights for disabled Americans: The foundation of a political agenda." In A. Gartner & T. Joe (Eds.), *Images of the Disabled, Disabling Images* (pp. 181~203). New York: Praeger.
- Heal, L., & Rusch, F. 1995. "Predicting employment for students who leave special education in high school programs." *Exceptional Children*, 61(5), pp. 472~487.
- Hill, M., Ruth, D., Hine, M., Carlson, R., Jones, S., & Watts, A. 1998. "Navigating and improving employment related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 emerging Work WORLD knowledge based decision support (WW-KBDS) system." *Journal of*

-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29(4), pp. 32~36.
- Hollenbeck, P., & Campbell, J. 1975. "Evaluator recommendation and subsequent performance : A follow-up of work evaluation clients." *Vocational Evaluation and Work Adjustment Bulletin*, 8, pp. 21~27.
- Jacobs, H. E. 1988. "Vocational training." In *Psychiatric Rehabilitation of Chronic Mental Patients* (ed. R. P. Liberman). American Psychiatric Press, pp. 245~284.
- James, M., DeVivo, M. J., & Richards, J. S. 1993. "Postinjury employment outcomes among African American and White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Rehabilitation Psychology*, 38, pp. 151~164.
- Leahy, M. J., Szymanski, E. M., & Linkowski, D. C. 1993. "Knowledge importance in rehabilitation counseling."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37(2), pp. 130~145.
- Linch, R. 1981. "Functional factors related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outcome : Implication for service providers and researchers."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3, pp. 112~122.
- Linkowski, D. C. 1969.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response to rehabilitation."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Buffalo, New York.
- Mandeville, K. A., & Brabham, R. 1987. "The state-federal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In Parker, R. M. & Szymanski, E. M. (Eds). *Rehabilitation Counseling: Basics and Beyond* (pp. 43~71). Austin, Texas: Pro-ed.
- Marinelli, R. P., & Dell Orto, A. E. (1984). *The Psychology and Social Impact of Physical Disability*.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Marut, P., & Bullis, M. 1985.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the vocational recommendation to rehabilitation outcomes for deaf people." *Vocational Evaluation and Work Adjustment Bulletin*, 18, pp. 66~69.
- Maureen McGuire-Kuletz. 2000. "A study of selected factors affect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outcom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 one-year follow-u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e Washington.
- Menz, F., Hansen, G., Smith, H., Brown, C., Ford, M., & McCrowey, G. 1989. "Gender equity in access, services, and benefits from vocational rehabilita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55(1), pp. 31~40.
- Misra, S., & Tseng, M. S. 1986. "Influence of the unemployment rate on vocational rehabilitation closures."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29, pp. 158~165.
- Nancy, M. Crewe, & Gary, T. Athelstan. 1984. *Functional assessment inventory manual*. Menomonie, Wisconsin: Materials Development Center.
-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1996. *Achieving Independence: The Challenge for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 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 (1993). "Job retention for people

- with disabilities." *Rehabilitation Brief*, 15, 2.
- Parker, H. J. 1985. "Closure profiles of four State rehabilitation agencies: 1981~1982." *Journal of Rehabilitation*, 4, pp.31~34.
- Parker Randall M., & Szymanski Edna Mora. 1992. *Rehabilitation Counseling: Basics and Beyond*. Austin: PRO-ED, Inc.
- Potsubay, R. T., & Fredrickson, R. H. 1985. "The impact of vocational assessment on occupational consistency and employment stability of rehabilitation clients." *Vocational Evaluation and Work Adjustment Bulletin*, 18, pp.21~28.
- Richard G. Long, John E. Crews, Rickilyn. 2000. "Creating measures of rehabilitation outcomes for people who are visually impaired: The FIMBA PROJECT."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May 2000, Vol. 94 Issue 5, p.292.
- Rigger, T. F., Maki, Dennis R., and Wolf, Arnold W. 1990.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ling*.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Rimmerman, A., Levy, J., Botuck. S. 1995. "Predicting the likelihood of job placement: A short-term perspective." *Journal of Rehabilitation*, 61(1), pp.50~54.
- Robinson, Charles Wilbur. 1983. "Selected relationships between client vocational self perception, vocational assessment programming and rehabilitation outcome." Unpublished Doctor's Paper,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Roessler Richard T., & Rubin, Stanford E. 1992. *Case Management and Rehabilitation Counseling: Procedures and Techniques*, 2nd ed. (1992). Austin: PRO-ED, Inc.
- Rubin E. Stanford & Roessler Richard T. 1999. *Foundations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cess* (4th Ed.). pro-ed: Austin, Texas.
- Saxon, John P., Spitznagel, Ronald J., & Shellhorn-Schutt, Penny K. 1983. "Indicators of successful vocational rehabilita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49, pp.69~71.
- Schelat K. Richard. 2000. "The predictive capacity of the working alliance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outco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hio.
- Smart, J. F. 1993. "Level of acculturation of Mexican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nd acceptance of disability." *Rehabilitation Bulletin*, 36(4), pp.199~211.
- Smith, Christopher A., & Goodwill Industries of America, Inc. (1987). *Program Evaluation: A Self-study Manual*. Menomonie, Wisconsin: Materials Development Center.
- Smith, J., & Crisler, J. 1985.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outcome of chronic low back pain individual."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1964, pp.22~24.
- Smith, James Kenneth. 1988. "The congruence between job recommendations based on interviews with job recommendation based on vocational evaluations." Unpublished Doctor's Paper, University of Georgia.
- Spalter-Roth, R. M., Hartman, H. I., & Andrews, L. M. 1991. Mother, children, and low-wage work: The ability to earn a family wage. The Second Annual Women's

- Conference Proceedings, 2, 172~180.
- Stern, Walter F., & Spiegel, Allen D. 1970. "Helping all the handicapped- state Planning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Rehabilitation Literature*, 31, pp.66~73.
- Szymanski, E. M. 1988. "The relationship of rehabilitation client outcome to level of rehabilitation counselor education"(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88).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9-11, 333.
- Szymanski, E. M. & Parker, R. M. 1989. "Relationship of rehabilitation client outcome to level of rehabilitation counselor educa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55(4), pp.32~36.
- Szymanski, E. M. 1991. "Relationship of level of rehabilitation counselor education to rehabilitation client outcome in the Wisconsin Divis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35(1), pp.23~37.
- Szymanski, E., Ryan, C., Merz, M., Trevinno, B., & Johnson-Rodriguez, S. 1996. "Psycho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work: Implica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E. M. Szymanski & R. M. Parker(Eds.), *Work and Disability: Issues and Job Placement*(pp.9~31). Austin, Tx: Pro-Ed.
- Tebb, Alan. 1982. "Getting the injured worker back in the labor market." *Risk Management*, 13, pp.12~17.
- Turner, J. C., & Ten Hoor. W. J. 1978. "The NIMH community support program: Pilot approach to a needed social reform." *Schizophrenia Bulletin*, 4, pp.319~348.
- Vash, C. L. 1982. "Employment issue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Rehabilitation Counseling Literature*, 43(7-8), pp.198~207.
- Wilkins, Ronnie Dale. 1983. "An intra-system evaluation of the Vocational evaluation process." Unpublished Doctor's Paper. Memphis State University.
- Wright, George Nelson.1980. *Total Rehabilitation*.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 Wright, George Nelson. 1983. *Physical Disability: A Psychosocial Approach*. Cambridge, MA: Harper & Rpw.